



2026. 10. 7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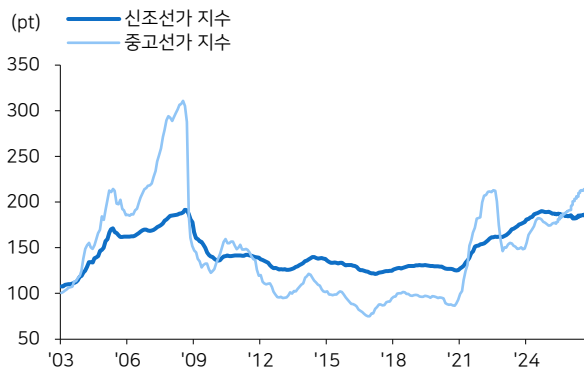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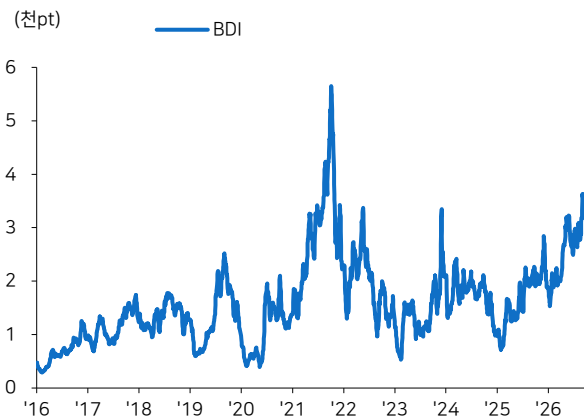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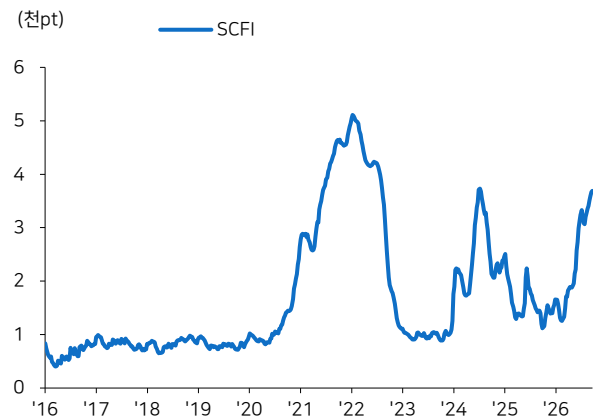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70.0p (-7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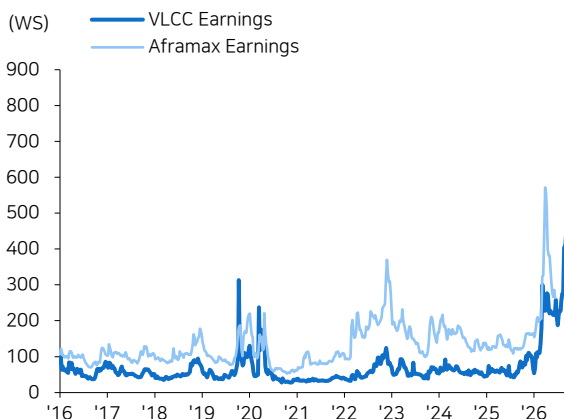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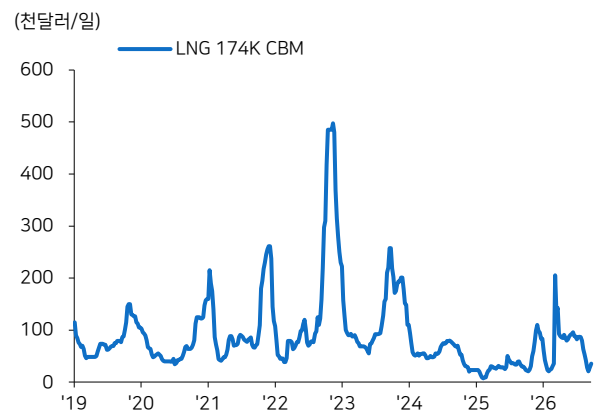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日 해운사, 모잠비크 LNG 운반선 17척 발주 결정 기로...한국 조선업계 기대감 ↑ (더구루)

<https://zrr.kr/tNUjdx>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용 LNG운반선 17척의 발주를 기다리는 가운데, Maran Gas Maritime의 철수로 MOL·NYK·K-Line 등 일본 3대 선사가 잔여 물량과 슬롯 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보도됨. TotalEnergies가 지난해 말 불가항력 선언을 해제하고 프로젝트를 재개했으며, 아풍기 현장 공정률이 45%에 도달해 2029년 첫 LNG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7척 발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짐. 유럽 금융기관 9곳의 총 22억달러 규모 지원 철회로 본계약 지연 우려가 있으나, TotalEnergies와 미국·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으로 국내 조선소의 수주 취소 가능성은 낮고, 신조선가가 2020년 LOI 당시 1억 8,000만달러에서 현재 2억6,000만달러를 상회해 선가 재협상 시 약 6조원 규모 수주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해짐.

HD 현대중, 크로아티아 120년 전통 조선소와 '2.4 조 동맹'...군함 건조사업 정조준 (더구루)

<https://zrr.kr/R89BIQ>

HD현대중공업이 크로아티아 이스크라 조선소와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고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크로아티아 해군 차세대 다목적 초계함 2척 사업에 공동 대응한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설계·시스템 통합과 기술 이전을 담당하고 이스크라 조선소가 현지 건조를 맡는 방식으로 현지 생산·기술이전 요건을 충족하며, 민수 선박과 무인수상정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 HD현대중공업은 3,200톤급 함정을 제안하고 크로아티아 기술자 교육과 현지 인력 파견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유럽 함정 시장에서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한 수주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해짐.

HD 현대, 세계 최초 래싱프리 컨테이너선 인도 (뉴시스)

<https://zrr.kr/B61p0T>

HD현대중공업이 작업자의 수동 고박 작업을 없앤 래싱프리(Lashing Free) 기술을 적용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했다고 보도됨. 셀가이드를 갑판 상부까지 확장하고 포터블벤치와 트위스트락 루팅 시스템을 적용해 컨테이너 고박을 자동화했으며, 기존 동일 선종 대비 갑판 적재 중량을 10% 이상 늘리고 운항 중 진동도 줄였다고 알려짐. HD현대는 래싱프리 기술을 중소형 선박까지 확대 적용하고 방수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기술도 개발하는 가운데, 컨테이너 운송의 자동화·무인화와 안전성 및 적재 효율 향상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전해짐.

한화오션, 중국서 '1,800 톤 괴물 크레인' 제작...거제조선소 역대급 설비 도입 (더구루)

<https://zrr.kr/M2ZpsD>

한화오션이 거제조선소의 대형 블록 처리 능력 확대를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해 1,800t급 골리앗 크레인을 도입하며, RIEC가 최근 강재 절단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신규 크레인은 기존 900t급 대비 인양능력이 2배로 확대돼 대형 선체 블록과 해양플랜트 모듈을 보다 큰 단위로 제작·탑재할 수 있어 LNG선·VLCC 등 대형 선박의 도크 내 작업과 용접 공정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신규 플로팅도크 3,338억원, 6,500t급 플로팅 크레인 2,680억원, 특수선 제조시설 2,644억원 등 거제조선소 생산설비 투자를 병행하며 대형 구조물 처리 능력과 고부가가치 선종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전해짐.

오늘 '누리호 5차' 발사...한화·HD 현대 등 300여개 민간 기업 뭉쳤다 (뉴시스)

<https://zrr.kr/dnnmkj>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5차 발사에 나서며 발사체 제작·운용부터 발사 인프라까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5t급 액체로켓엔진 등 주요 부품과 발사체 제작을 총괄하고 발사통제센터 22개 콘솔 중 20개에 인력 23명을 투입하는 한편, HD현대중공업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지상·추진제 공급·발사관제 설비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용을 담당했다고 알려짐. 누리호 사업에는 한화·HD현대 등 대기업과 약 300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반복 발사를 통한 제작·운용 경험 축적과 발사 수요 확대가 국내 우주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짐.

EU set to delay methane rules implementation by one year (TradeWinds)

<https://zrr.kr/TqkObT>

EU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천연가스·원유·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 시행을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당초 2027년 1월부터 수입업체가 가스 생산지의 메탄 배출량을 제3기관 검증 자료로 제출해야 했으나,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과 미국·카타르·나이지리아·알제리 등이 LNG 수입 차질과 수출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고 알려짐. EU의 규제 연기로 LNG 수출국의 인증 부담과 비용이 완화되면서 유럽향 LNG 공급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가스 공급 부족 국면에서 유럽의 LNG 수입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